



## 신라와 고려의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 불교를 중심으로

The Ideological Continuity and Peculiarity of Silla and Korye Focused on Buddhism

---

저자 (Authors)	김복순 Kim Bok-Soon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연구 54</a> , 2009.6, 367-394(28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54</a> , 2009.6, 367-394(2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학회</a>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121331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1213311</a>
APA Style	김복순 (2009). 신라와 고려의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 한국고대사연구, 54, 367-39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3 14:5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와 고려의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

## — 불교를 중심으로 —

김복순\*

- I. 머리말
- II. 불교의 공인과 국가적 행사
- III. 국제교류와 시대성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는 935년 고려에 병합되면서 많은 부분이 계승되었다. 그 가운데 사상적 연속성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고려말 조선초의 유불교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라와 고려의 사상이 연속되고 있으며, 그 시대적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독자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은 신라와 고려의 불교가 국교로서 지니고 있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을 살펴보려 한다.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2008 『신사조로서의 신라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 2008 「고려의 최치원 만들기-지증대사비의 건립을 중심으로-」 『신라문화』3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2007 「혜초의 천축순례 과정과 목적」 『한국인물사연구』8, 한국인물사연구소 ; 2006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43.

먼저 국교로서의 공인과 국가적 행사에 관한 내용이다. 신라는 불교의 공인 이후 무속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 할 ‘前佛시대 칠처가람설’을 통해서, 고려는 태조 왕건의 불교통합정책에 의거하여 각각 그 특색을 띠게 되었다. 이들의 시대성을 비교해서 사상적 연속성을 짚어 보았다. 신라의 불교는 신사조로 유입되어 재래의 신앙체계를 극복하고 구유식과 신유식, 화엄종과 법상종, 선종 등이 뿌리내렸다면, 고려는 불교 내에 잡다한 신앙들을 포용해 나간 시대적 간격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교를 최고의 지위에 두고 이들을 階序의 포용하였다. 때문에 고려는 불교국가라기 보다 다종교사회라고 하는 견해까지 있기도 하다.

한편 신라와 고려의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공통분모 속에서도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백고좌법회,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호국도량법회의 개최를 의미한다. 신라에서 시작된 이 법회들은 고려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 횟수가 잦아졌다. 또한 신라에서는 몇몇 고승들이 강경하던 행사가 고려에서는 經行과 같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라불교가 많은 주석서를 낸 학파성을 띤 불교였다면, 고려는 종파성이 강한 종합불교적 성격을 나타내었다. 신라의 사찰은 왕명에 의해 그 소속업이 바뀐 사례가 많지만, 고려는 태조의 유훈으로 이를 금지한 점이 비견된다.

다음으로 신라와 고려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와 시대성에 관한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신라와 고려로 유입된 불교경전을 통한 인도불교적 요소와 중국불교의 영향으로 구분해 보았다. 신라불교는 인도불교적 요소로서 『법대승론』의 유행과 주석,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나오는 인도의 논서들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보았다. 고려불교는 신라 성덕왕 이래 유행한 중국불교적 요소가 더욱 번성하여 각 종파의 조사설로 나타난 특징이 보이고 있다. 고려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불경을 전해 주는 등 상호교류적인 측면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를 시대성의 측면에서 보면, 신라의 불교가 고려로 이어져 그 연속성을 보이면서 사상적으로 난숙기를 연 반면에, 고려의 불교는 더 이상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해 주자학의 배불논리에 밀려 주도적 사상체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주제어 : 신라와 고려,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 전불시대 7처가람설, 고려태조의 불교정책, 호국법회, 인도불교적 요소와 중국불교적 영향

## I. 머리말

신라는 935년 고려에 병합되면서 많은 부분이 계승되었다. 그 가운데 사상적 연속성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고려말 조선초의 유불 교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라와 고려의 사상이 연속되고 있으며, 그 시대적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독자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신라와 고려의 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고들이 나와 있으며, 그 계승성 내지 연속성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신라와 고려의 사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불교를 중심으로 그 연속성과 독자성을 살펴보려 한다. 신라와 고려의 불교는 교학불교로서의 화엄학과 유식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사상성의 비교는 다음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논의의 초점을 국가적 행사와 국제교류에 두어 살펴보려 한다. 그것은 신라와 고려의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특성인 국가적 행사, 국제교류 등에 보이는 연속성과 독자성에 중점을 두려는 까닭이다.

우선 신라와 고려의 시기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신라는 불교의 공인 이후 무속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 할 ‘前佛시대 7처가람설’을 통해서 이른바 불국토사상의 전개를 보았다면, 고려는 태조 왕건의 불교 통합정책에 의거하여 그 특색을 띠게 되었으므로, 이들의 시대성을 비교해서 그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을 짚어 보려 한다. 다음으로 신라와 고려의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면서도 나름의 독자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백고좌법회,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호국도량법회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그것은 신라에서 시작된 이 호국법회들이 고려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횡수도 찾아지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라와 고려에 존재하였던 종파 내지 사찰의 소속이 어떠한 연속성과 독자성을 보이는가의 문제를 불국

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언급해 보려 한다. 끝으로 신라와 고려에서 유행하였던 불교경전의 유입과 이에 따른 국제성을 띤 불교로서의 측면을 인도불교적 요소와 중국불교의 영향으로 구분하고, 그 시대성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 Ⅱ. 불교의 공인과 국가적 행사

신라와 고려에서 불교가 전개된 양상을 큰 틀에서 정리하자면, 불교의 공인 이후 율학승의 교류를 통한 문물의 수입, 국사 등 승관제의 존재, 국가행사인 팔관회와 연등회 등을 연속선상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도 시대에 따라 여러 번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각 부분을 강조한 논고들이 양산된 측면이 보인다. 여기서는 이들을 묶어서 신라와 고려의 불교에 나타나는 연속성과 함께 독자성을 찾아보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이제까지 나온 논의들을 개괄적인 면에서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라의 불교는 전래 이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지만, 재래 무속을 극복해 가면서 그 전통 위에 불교가 뿌리내린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에 고려의 불교는 불교 내에 재래의 풍수지리, 도참, 전통적 토속신앙 등을 계서적으로 포용하여 다면적인 양상을 드러낸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 불교가 재래 무속을 극복해 가면서 신라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전불시대 7처 가람설'을 통해 잘 볼 수 있다. 이 설은 신라불국토 사상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신라의 왕경인 서라벌은 前佛시대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불시대 가람터로 추정되는 곳에 흥륜사, 영흥사, 황룡사, 영묘사, 분황사, 담엄사, 사천왕사의 7개 사찰이 세워졌다는 설이다.<sup>1)</sup> 하지만 전불시대의 가람터는 대개

신라 무속신앙의 성소인 소도 내지는 제장이 있었던 곳으로, 흥륜사가 세워진 곳은 천경림으로, 황룡사는 용궁, 사천왕사는 신유림과 같은 신성지역이었던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sup> 재래의 신성지역에 사찰이 들어서면서 신라사회에 불교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들 7처가람 가운데 사천왕사는 679년 건립되고 있어, 이 설이 형성된 연대는 대개 그 이후로 추정된다. 때문에 신문왕이 689년에 달구벌로 천도하고자 했던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3)</sup> 그것은 신라 조정에서 왕경이 지역적으로 편협한 것을 문제 삼아 천도가 거론되고 달구벌로 옮기려 하자, 신라의 구귀족들은 신라의 어느 지역도 서라벌만한 곳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7불의 전불 신앙을 이들 사찰에 비견한 이른바 '전불시대 7처가람설'을 내세워 천도를 좌절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그리고 왕경에 보문(사)를 통해 불국(사)로 가는 길을 상징하는 등 신라불국토설을 더욱 확고히 하였을 것이다.

고려를 개창한 태조 왕건은 신라에 이은 후삼국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고려적 시각에서 불교계를 재편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어 재래의 여러 무속들을 불교 안에 階序的으로 포용하려 하였다.

고려 태조가 통합적인 불교정책을 실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 
- 1) 『삼국유사』 권3, 「아도기라」조.
  - 2)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6, p.172 ; 최광식, 1995 「신라 상대 왕경의 제장」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신라왕경연구-』16, p.71.
  - 3) 『삼국사기』 권8, 신문왕 9년조.
  - 4) 김복순, 2005 「신라 중대의 불교」 『신라문화』25, p.173; 신동하, 2000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4에서 7처 가람의 추이를 볼 때, 이들 사찰이 공통적으로 중요시된 시기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로, 중대 말에서 하대 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7처가람설이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한 호족 연합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sup>5)</sup>

그런데 태조가 이러한 정책을 편 것은 무엇보다도 勝朝인 신라의 제도가 아닌 고려의 것으로 재편하는데 주안을 둔 측면이 있다.<sup>6)</sup> 태조 왕건은 선종, 화엄종, 유가종의 많은 승려들을 포섭하였고, 소속 사찰도 창건하여 고려 안에 이들을 포용하였다. 몇몇 예를 들어 보자.

우선 선종의 회양산파 개창에 관한 것이다. 신라의 지증대사비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能善이 깊숙이 간여하여 兢讓을 고려로 끌어들이려 하였을 뿐 아니라, 결국 공양으로 하여금 고려에서 회양산문을 개창하게 하였다.<sup>7)</sup> 또한 신라 때부터 있던 종파인 신인종을 고려의 것으로 재개창시켜 現聖寺를 본산으로 개창케 한 예도 들 수 있다.<sup>8)</sup> 그리고 태조 18년인 935년에 신라의 율종도 율업으로 하여 開國寺를 개창하였다.<sup>9)</sup>

이렇게 불교계를 정리해 나간 고려 태조는 신라 때의 中祀 이하의 5약, 4진, 4해, 4독의 岳鎮海瀆과 명산대천 그리고 천지의 모든 신을 고려의 불교적 세계관 안에 포용하여 계서화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5) 한기문, 1983 「고려 태조의 불교정책－창건사원을 중심으로－」 『대구사학』22 ; 김두진, 1981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한국학논총』4.

6) 이정신, 2002 「고려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외 정세」 『한국사연구』118, pp.47~50. 신라의 진평왕대의 진종설화와 고려 태조대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어 수궁하기 어렵다. 다만 고려 태조의 목표가 불교를 통해 민심을 회유하며, 사원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었다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이인재, 2005 「선사(禪師) 공양(兢讓: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한국사연구』131, p.176 ; 김복순, 2008 「고려의 최치원 만들기」 『신라문화』32, pp.88~89.

8)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조 ; 서윤길, 1990 「高麗 瑜伽. 律. 神印 等 諸宗의 성격과 그 展開」 『韓國史論』20, 국사편찬위원회, p.125(1993,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p.280) ; 한기문, 2000, 「고려시대 개경 현성사의 창건과 신인종」 『역사교육논집』26, pp.477~478.

9) 이제현, 「重修開國律寺記」 『東文選』 권69.

태조 왕건이 직접 찬술한 「神聖王親製 開泰寺華嚴法會疏」<sup>10)</sup>인 개태사 화엄법회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화엄법회에서 十方三世 一切諸佛을 위시하여 諸尊菩薩, 羅漢聖衆, 梵釋四王, 日月星辰, 天龍八部, 岳鎮海瀆, 名山大川, 天地一切靈祇 등을 순서적으로 나열하여 불교 안에 재래 무속신앙을 포용하였다.

또한 고려 전기에 계서적 지방지배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연등회와 팔관회가 지방의 지역공동체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것도<sup>11)</sup> 태조의 훈요에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sup>12)</sup>라고 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태조의 훈요 내용을 강조하여 고려를 다종교국가로 부르려는 시도가 있다. 즉 태조는 불교가 국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유교, 도교, 그리고 민족 고유종교가 각각 자기 기능을 다할 것을 역설한 다종교정책을 썼다는 것이다.<sup>13)</sup> 고려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이루기 위해 현존하는 종교교단과 종교전통세력들을 실용적, 기복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종교문화가 공존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논고에서도 고려의 타종교에 대한 포용정신을 언급하면서 경험적 차원에서 타종교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는 한국인의 종교관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고려의 포용정신 때문이기보다는 고려 불교가 가진 포용정신이라고 해야

10) 崔瀼, 「東人之文四六」 권8 ; 『고려사』 권2, 태조 23년 ; 양은용, 1992 「고려태조친제 『개태사 화엄법회소』의 연구」 『가산이시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pp.810~822.

11) 채웅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본관제의 시행과 지방지배질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88~199.

12)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13) 윤이흠, 2002 「고려 종교사상의 특성과 흐름」 『고려시대의 종교문화-그 역사적 상황과 복합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7~18.

할 것이다.

둘째, 신라와 고려의 불교는 호국도량법회의 실행이라는 연속성을 보이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신라는 진흥왕 12년(551)에 혜량에 의해 전해진 팔관지법, 백좌강회, 그리고 승통의 임명과 같은 승관제를 실시하면서 호국불교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혜량에 의해 처음 소개된 백고좌회는 백좌강회라고도 하는데, 『인왕경』의 강경이 중심이 되는 호국법회이다.<sup>14)</sup> 재래 무속이 신궁과 소도로 대표되고 유교가 종묘로 대변된다면, 불교는 백좌강회로 불 정도로 호국 불교적 특징을 나타내는 행사이다.

신라 진평왕 35년(613) 수나라 사신 왕세의가 왔을 때 황룡사에서 실시된 백좌도량은 신라에서의 대표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백좌강회와 관련이 있는 혜량, 원광, 안함은 모두 국가의 흥망성쇠를 겪은 이들이었다. 혜량의 경우 政爭이었다지만, 거의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경험하였고, 원광은 수의 난병에 의해 죽을 고비까지 이르는 경험이 있었다. 안함은 640년에 입적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진의 멸망과 수의 멸망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들이 신라의 호국을 위한 도량법회를 주도한 것은 신라불교가 호국불교로서 뿌리내리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왕경』중심의 백좌강회는 신라가 668년 이후 당과의 대결 구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호국법회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당나라가 신라를 치기 위해 보낸 수군이 신라 국경 가까이 정주(개풍군)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한 신라 조정이 명랑법사를 위시한 신라의 유가명승 12인으로 하여금 수나라 시대에 역출된 합부『금광명경』에 의거하여 호국도량을 개설하게 하였고, 『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 따라 문두루비법을 행한 결과 당나라 수군의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sup>15)</sup> 명랑이

14) 이기영, 1975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 『동양학』5, pp.510~511.

15) 『삼국유사』 권2, 『문호왕 법민』조 ; 김복순, 2006 「신라 왕경사찰의 분포와

행한 이 도량은 이전의 『인왕경』 중심의 백좌강회를 이은, 신라 호국법회의 또 다른 전형이 되었고, 고려로까지 연결되었다.

고려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으므로, 호국도량법회의 실시가 매우 많았다. 인왕도량은 현종 때 4차에 걸쳐 『인왕경』을 강경한 이래 백좌도량, 백좌인왕경도량, 백고좌인왕도량, 인왕도량으로 불리며, 공민왕대까지 총 120회가 설행되었다.<sup>16)</sup>

또한 고려에서는 정종 7년(1041) 『금강명경』도량이 최초로 개설된 후 26회 설행되었다. 그리고 문종 28년(1074) 문두루도량이 경주의 사천왕사에서 번병의 격퇴를 기원하며 27일 간 개최되었는데,<sup>17)</sup> 이는 신라에서 연 명량의 호국도량법회를 이은 것이다. 이 법회는 이후 6회나 더 설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행된 신라와 고려에서의 호국법회는 『인왕경』과 『합부금광명경』, 『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의 강경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기우제나 참법의 실행 작법에 있어 그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가뭄에 비를 비는 형식을 한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다.

- 1) 景德王 天寶十二年癸巳 夏大旱 詔入內 講金光經 以祈甘霖 一日齋次 展鉢良久 而淨水獻遲 監吏詰之 供者曰 宮井枯涸(물마를 학) 汲遠故遲爾 賢聞之曰 何不早云 及晝講時 奉爐默然 斯須井水湧出 (『삼국유사』권4, 『현유가해화엄』)
- 2) 庚午 設金剛明經道場于文德殿禱雨 乙亥 雨 (『고려사』 권6, 정종 신사 7년)

체계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27, pp.125~127.

16) 김형우, 1992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0 ; 박용진, 1999, 「고려 후기 인왕도량의 설행과 그 의의」 『북악사론』6 참조.

17) 『고려사』 권9, 문종 28년 7월 庚午.

- 3) 師於文德殿 講八卷金經 師手捧銀塗 徐舉象王之步 身昇蓮座 高騰師  
子之音 口軸未終 浮雲四 霏然下雨 (『칠장사 慧炤國師碑』)

신라 경덕왕대의 내용(1)과 고려 정종(2), 문종(3) 대의 정황이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뭄에 비를 빌기 위해 『금광경』, 『8권금경』을 강설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종 대의 도량은 구체적인 경전이 보이지 않지만, 문종 대와 같이 문덕전에서 연 것을 보면, 이들 경전들은 수나라의 보개가 역출한 8권의 『합부금광명경』으로 볼 수 있는데, 명랑이 개설한 문두루도량에서 강경한 『금광명경』이다. 또한 강경 시에 奉爐默然 내지 手捧銀塗하여 향로를 받들었던 모습이 매우 흡사하고, 이어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온다든가 비가 쏟아지는 모습이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예로 참법도량의 작법을 들 수 있다. 신라의 진표가 행한 점찰법과<sup>18)</sup> 고려에 와서 진억이 수정사를 짓고 참법도량을 시행한 방법<sup>19)</sup> 모두 『점찰선악업보경』에 의한 것으로, 같은 작법을 행하고 있다.

반면 독자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신라 당시의 행사가 고려에 와서 변질되거나 확대된 측면이 보인다는 점이다.

신라의 점찰법회가 개인의 계율과 참회를 중시하였다면, 고려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변란과 관련된 위령제와 같은 현실적 목적 하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김부식의 『속리산 점찰회소』와 유희의 『도솔원 점찰회소』에 나오는 내용<sup>20)</sup>이 그것이다. 또한 신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드물게 개최했던 호국도량법회가, 고려에 들어서서는 국가는 물론 왕실, 귀척들에 의해 다양한 명칭의 법회로 세분되어 자주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18) 『삼국유사』 권4, 「진표전간」조.

19) 권적, 『지리산수정사기』.

20) 『동문선』 권110.

특히 고려에서는 『인왕경』을 받들고 시가지를 행진하는 經行이 정종12년(1046)부터 행해졌다. 왕명에 의해 시중 최제안이 분향 후 개경거리를 『인왕경』을 봉안한 가마를 메고 앞장서서 행진하고, 승려·관원들이 시가를 순회하며 백성들의 복을 비는 축원행사로써 진행하였는데, 이후 상례화되었다. 초기 고승대덕 중심의 행사를 점차 거리로 들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대중적 불교행사로 확대시킨 점이 주목된다.<sup>21)</sup> 또한 ‘昔吾在普願寺 奉持三本華嚴經 每以中夜 經行像殿 不絕數年.....’의 예와 같이,<sup>22)</sup> 경행은 『인왕경』뿐 아니라 『화엄경』 등으로도 설행되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로 신라와 고려 모두 팔관회와 연등회를 개최하였으나, 역시 독자성이 있었다.

신라에서의 연등회 개최 기록은 경문왕 6년과 진성여왕 4년 정월 15일에 열린 것이 전부이다.<sup>23)</sup>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나오는 적산법화원의 상원재회를 들어 본국인 신라에서도 정월 15일에 연등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24)</sup>

한편 고려에서의 연등회는 정월 상원의 제천기농제와 도교의 태일성제사 등이 습합되어 정월 보름에 시행되다가, 현종 이후 인종 말까지 약 140년 동안은 2월 보름에 실시하였다.<sup>25)</sup> 그런데 고려 말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4월 초8일에 國俗으로 연등회를 연 기록도 있다.

신라 때 실시된 팔관지법은 불교의 八戒와는 거리가 멀었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호국 신앙적 측면에서 수용

21) 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불교의례와 문화』, p.302.

22) 「법인국사비」, 허홍식편저, 1984, 『한국금석전문』중세 상, p.416 ; 이지관편, 1995,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2, p.80.

23) 『삼국사기』 권11, 경문왕 6년 춘정월 15일, 진성왕 4년 춘정월 15일.

24) 안지원, 2005 앞의 책, p.51.

25) 김형우, 1994 「고려시대 연등회 연구-설행실태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55, p.113.

하였던 행사로서, 전물장병 위령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불교행사가 신라에 들어와 변용된 형태라고 하겠다. 자장법사는 귀국 후 중국에서 만났던 신인神人이 “황룡사9층탑을 세우고 팔관회를 열어 죄인을 용서 하면 외적이 침입하지 못할 것”<sup>26)</sup>이라고 한 말을 받아들여 황룡사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볼 때, 팔관회는 7세기까지 계속 시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려의 팔관회는 태조에 의해 규정된 佛供樂神之會의 성격에 신라의 화랑적 요소로서 四仙樂部와 龍鳳象馬車船의 미륵하생의 용화세계를 형상화한 요소와 고구려의 동명제 의식이 첨가된 복합적 축제였다.<sup>27)</sup> 이에 더하여 고려의 팔관회는 불교행사이면서도 유교 오례 가운데 嘉禮의 연회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고려사』에 仲冬八關會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sup>28)</sup> 그리고 고려에서는 매년 월별로 정기적인 행사가 열렸는데, 연등회가 1-2월에, 장경도량이 3-4월에, 우란분재가 7월에, 인왕백고좌도량이 9-10월에, 팔관회가 10-11월에 설행되었다.<sup>29)</sup>

다음으로 종파와 사찰의 소속 문제이다. 신라시대의 종파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여 통불교 내지 학파불교, 종파불교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신라불교가 많은 주석서를 낸 학파성을 띤 불교였다면, 고려는 종파성이 강한 종합불교적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30)</sup> 그런데 신라에서는 의상의 화엄종파 진표의 법상종은 학파적 성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단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여, 종파 성립의 연원을 신라로까지 소급하기도 한다. 반면 고려는 승려들을

26) 『삼국유사』 권3, 「황룡사구층탑」 조.

27) 안지원, 2005 앞의 책, pp.145~152.

28) 『고려사』 권69, 禮志 嘉禮雜儀.

29) 김형우, 1994 앞의 논문, p.119.

30) 허홍식, 1983 「한국불교의 종파형성에 대한 시론」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화엄업, 유가업, 조계업으로 계통을 나누고, 승과를 치루어 승차하게 하였다. 왕사와 국사가 왕의 스승으로 대우받기는 하였으나 그 밖의 승려들은 조정의 신하로서 존재하였다.

신라 시기 의상의 귀국과 진표의 등장으로 성립된 화엄종과 법상종은 신·구유식에 경도된 왕경의 교학불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구성원이 매우 다양했고 교학과 함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교종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조계종, 천태업과 함께 4대업을 이룰 정도로 중앙에서의 활동이 매우 강성하였다는 점이 대비된다. 신앙적 측면에서의 연속성도 운위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별도의 지면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사찰의 소속업에 관한 문제이다.

신라의 경우 사찰의 소속이 국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월광사의 경우 유가승 도증이 개창하였으나, 원랑선사 대통이 경문왕에 의해 주지로 임명되고 있다.<sup>31)</sup> 보조선사 체징이 머물던 迦智山寺는 원래 759년 경덕왕이 특별히 교지를 내려 불전을 건립하고 장생표주를 세워 그 구역을 획정해 주었던 화엄승 원표대덕이 머물던 보림사였으나, 현안왕이 가지산사라는 선종사찰로 바꾸고 있다.<sup>32)</sup>

고려에서는 태조가 훈요에서 “其一曰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故創禪教寺院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 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sup>33)</sup>라고 하여, 그 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종파가 고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광종 대 이후 승과의 실시로 더욱 고정된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의천이 천태업을 개창하

31) 『월광사 원랑선사비』 허홍식 편저, 1984 『한국금석전문』고대, p.226 ; 이지관 편, 1994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 p.214.

32) 『보림사 보조선사비』 허홍식 편저, 1984, 앞의 책, p.200 ; 이지관 편 1994, 앞의 책, p.98.

33) 『고려사』 권2, 태조 26년 하4월.

고 선종 승려들을 전업시키려 하였을 때, 학일을 중심으로 한 선사들이 끝까지 거부하였던 것이 국초부터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사찰의 소속업이 신라에서 고려로 연결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찰로서 불국사가 주목된다.

근래 발견된 석가탑에서 나온 묵서에는 불국사가 瑜伽業 사찰로 명시되어 있다.<sup>34)</sup> 그런데 불국사는 표훈과 신림이 불국사와 석불사에 주석하였다는 『삼국유사』에 실린 향전의 내용과 최치원이 화엄불국이라 쓴 기록으로 화엄계통의 사찰로 알려져 왔다.<sup>35)</sup>

하지만 불국사의 寺中記 기록은 이 묵서에 나오는 유가업 사찰과 관련이 있는 기록임을 알려준다.

- 4) 절안의 기록(寺中有記)에는 '경덕왕 때의 대상 김대성이 天寶 10년인 751년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하여 혜공왕 대를 지났는데, 大曆 9년인 774년 12월 2일에 김대성이 죽었으므로 나라에서 이를 완공시켰다. 처음에 유가의 대덕을 청해다가 향마하고 이 절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이를 계승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古傳과 같지 않으므로 어느 것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 신문왕대)

불국사가 화엄종 사찰이었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初請瑜伽大德降魔住此寺繼之至于今'의 기록이고, 또 하나는 최치원찬의 『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에 나오는 표훈, 유가, 원측의 3聖講院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자의 경우 유가대덕의 유가를 화엄대덕의 이름으로 보기도

---

34) 노명호, 이승재, 2008 「석가탑 묵서지편 고문서의 판독 및 역주」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 p.141.

35) 김상현, 1986 「석불사 및 불국사의 연구」 『불교연구』2, pp.10~11.

하였고, 후자의 경우 표훈이 포함되어 있어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왔다. 그런데 불국사가 유가업이었다고 할 때, 유가대덕을 화엄대덕의 이름인 유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법상종과 관련있는 유가대덕 항마로 해석해서 항마를 이름으로 보거나 또는 항마를 동사로 봐서 유가대덕이 항마하고 불국사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치원이 썼다고 보는 『故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이 이곳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sup>36)</sup> 불국사가 유가업이었음이 더욱 입증될 것이다. 그렇다면 표훈, 유가, 원측의 3聖講院의 문제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즉 초기에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할 때 표훈이 관계한 사실과 사찰이 낙성된 후 유가대덕이 와서 항마한 사실, 그리고 유가승 원측을 함께 받든 사실로 인해 3성 강원이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37)</sup>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불국사는 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 계속 유가업 사찰로 존속해 온 까닭에 석가탑 목서지편에 유가업으로 표명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불국사가 낙성되면서 유가계통의 사찰로 출발하였는데, 원성왕대 이후 점차 화엄 승들이 등장하게 되자, 유가 승들이 주석하던 사찰인 불국사에 현강왕에 의해 화엄 승들을 주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 문제는 표훈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고에서 좀 더 상세히 고구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

36)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pp.174~177에서 최치원의 저작에서 빼어 놓았으나, 민영규를 비롯, 신현숙, 권덕영, 남무희 등이 최치원의 저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측에 관한 논고를 쓰고 있다. 남무희, 1999 「원측의 씨족 연원과 신분」 『북악사론』6, pp.3~8에서 연구사를 잘 정리해 놓았다.

37) 김복순, 1990, 앞의 책, pp.55~56.

### Ⅲ. 불교의 국제교류와 시대성

불교는 인도와 중국을 통하여 끊임없이 유입되고, 시대에 따라 상대국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등 국제교류가 행해졌다. 신라와 고려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하여 불교 경전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신라와 고려 불교에 보이는 인도불교적 요소와 중국불교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별해서 살펴보려 한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흔히 인도불교가 중국불교화 되는 기점은 대개 화엄종과 선종의 성립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신라를 기준으로 하여 신라인들이 중국에 유학하였다가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를 유입한 내용은 인도불교적 요소로, 중국불교만을 유입하여 그대로 수용된 내용은 중국불교적 요소로 구분하려 한다.

우선 인도불교적 요소에 관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안습과 함께 수나라에서 신라에 왔던 烏長國 승려들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북천축 오장국의 毘摩羅眞諦, 農伽陀, 摩頭羅國의 佛陀僧伽가 그들로서, 이들은 중국승려 2인과 함께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계통으로 추정되는 불경을 번역해 내고 신라 승이 필수를 하였다.<sup>38)</sup> 이에 앞서 백제에서 겸익이 인도에 가서 구해온 범본 5부율의 번역이 신라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천축 승들의 신라 내방은 인도와 인도 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을 것이다.<sup>39)</sup> 신라인들의 인도행이 많았다는 것은 인도에서 신라인들을 鷄貴인 ‘矩矩吒嚩說羅’로 불렀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입증한다.<sup>40)</sup>

38) 『해동고승전』 권2, 「안습」 전.

39) 김복순, 2004 「삼국의 불교와 사상교류」 『신라문화』24, p.187.

40) 『삼국유사』 권4, 「귀족제사」조 ; 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上.

두 번째는 신라불교의 교학적 측면이다. 신라불교는 구유식에 바탕을 둔 측면이 강하다.<sup>41)</sup> 그것은 자장이 643년 귀국하면서 대장경 온길 1부를 가져왔지만, 아직 현장이 인도에서 돌아오는 645년 이전이므로 구역에 의한 불경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 불교의 기초를 놓은 원광, 자장, 원효, 의상, 원측은 모두 구유식에 기반을 둔 인물들로, 그들의 교학적 배경이 진제역의 『섭대승론』에 기초하였다는 점이다.<sup>42)</sup>

그런데 신라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섭대승론』의 내용이 완전하지 못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섭론의 원본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인도에까지 갔다는 사실이다. 인도의 나란다 대학으로 유학한 慧業은 梁論인 『섭대승론』을 사경하여 고국으로 가져오려고 한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sup>43)</sup> 현장이 『유가사지론』의 원본을 구하고자 인도행을 결심하였다는 설에 대비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세 번째는 신라 승들이 초기 인도불교의 論書를 배우고 익혔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혜초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5) 또 이 탁살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 걸리면 신두고라국에 이른다. 의복과 풍속과 기후가 차고 따뜻한 것이 북천축국과 비슷하고 언어가 조금 다르다. 이 나라에는 낙타가 매우 많고 사람들은 우유와 버터를 먹는다. 왕과 백성들은 삼보를 크게 공경하며 절도 많고 승려도 많다. 『順正理論』을 쓴

41) 김복순, 2006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불교계 동향」 『한국고대사연구』43, pp.172~179.

42) 원광은 수에 있을 때 『섭대승론』 연구에 진력한 바 있고, 자장도 궁중에서 『섭대승론』을 강연하였고, 원효도 『섭대승론세친석론약기』 4권의 주석서를 낸 바 있고, 도중과 태현의 주석서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불교는 구유식의 진제역의 『섭대승론』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 역시 섭론종의 대가 진제삼장이 550년에 번역한 것이다.

43)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의하면, 의정이 나란다사에 머물면서 불서를 조사하다가 梁論 아래에 “불치목 나무 아래에서 신라승 慧業이 썼다(在佛齒木樹下新羅僧慧業記)”는 것을 보고 「신라혜업법사전」을 입전한 것이다. 이 내용도 역시 『삼국유사』 권4, 「歸竺諸師」조에도 실려져 있다.

衆賢이 이 나라 사람이다. 이 나라는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해진다. 지금은 대식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는 『순정리론』을 쓴 衆賢<sup>44)</sup>이 인도 편잡북부 일대인 신두고라국사람이라고 특기하였다. 그가 밀교에 깊이 투신하기 이전이므로, 이 내용은 신라에서 배운 교학 배경이라 이해된다.

또한 혜초는 간다라국을 지나면서 天親보살과 無着보살을 언급하고 있다. 카니시카 사찰은 이 왕이 조성한 사찰이어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곳으로, 이들이 머물렀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 천친은 세친의 다른 이름으로, 그의 형인 무착과 함께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한 대표적 논사들이다. 혜초의 기록이 거칠기는 하지만, 8세기 경의 신라에서는 승려들이 설일체유부라 할 『구사론』, 『순정리론』 등 인도교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혜초는 불타의 4本生處가 모두 간다라국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혜초가 지목한 장소를 현재 답사해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sup>45)</sup> 그렇지만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救鵠處, 捨頭處, 捨眼處, 餓五夜又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설화를 담고 있는 『현우경』, 『보살본행경』, 『미륵보살소문본원경』이 신라에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신라에서는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이기는

44) 중현은 世親의 「구사론」을 비판한 「구사박론」을 쓴 논사이다. 「순정리론」은 이 「구사박론」을 다시 정리한 논서로 알려져 있다

45) 혜초는 4本생처가 모두 간다라국 경내의 우다반다푸라 동남쪽 산중에 있다고 했는데, 정수일, 2004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역주본』, 학고재, p.301에는 구합처는 부네르에, 사두처는 탁실라에, 사안처는 푸흐칼라바티에, 위야차처는 오장국에 지정된다고 보고, 혜초가 지적한 4本생처 가운데 사두처인 탁실라만 일치하지만 그나마 평야로서 혜초가 산속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였지만, 인도의 교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한편 고려에서도 인도불교와 관련되는 내용이 태조 대에도 보이고 있고, 지공화상과의 깊은 인연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선종으로 일색이 되고 인도에서 불교가 점차 쇠퇴하면서 인도불적 순례는 중국 선종조사의 탐을 순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sup>46)</sup> 이는 인도불교의 쇠퇴에 따른 현상으로 그 영향이 신라 시대와 같이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중국 불교적 요소이다. 신라의 불교는 성덕왕대 이후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불교적 요소를 보인다는 점이다.

645년 玄奘의 귀국 이후 신유식이 전해지면서 신라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구법 유학승들이 당으로 향하였고, 역출된 경전이 신라로 유입되었다. 이미 원광과 자장, 원효에 의해 『섭대승론』의 개론적 이해 위에 구유식의 이해를 갖고 있던 신라인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신유식의 『유가사지론』이 649년에, 『성유식론』이 659년에 변경되어 신라에 전해짐으로써 일으킨 반향은 매우 컸다. 그러나 문무왕·신문왕 대의 소강상태를 거치고 나서, 성덕왕 이후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점차 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왕경』, 『금광명경』과 『금광경최승왕경』이 국가적 행사에 강경되었다.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은 많은 신라 승들이 주석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성유식론』의 주석은 당시는 물론이고 후대에까지 이어져, 이들 가운데 중요한 이들은 약칭해서 부르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sup>47)</sup> 예를 들면 화상은 현장, 유설은 규기라고 한 것과 같이, 유석은

46) 김복순, 2005 「9-10세기 신라 유학승들의 중국유학과 활동 반경」 『역사와 현실』56, p.45.

47) 이만, 1990-1991-1992; 「법상관계 논소와 신라인의 찬술서-산일본을 중심으로-」1:2-3, 『불교학보』 27-28-29, 1993 「신라인 찬술의 『성유식론소』산일본

원측, 유초는 보광, 유해는 혜관, 유운은 현범, 미상결은 의적, 요집은 도증, 편량은 경흥 등이다. 신라의 법상유식가로 오늘날 그 이름이 전하고 있는 이로는 원측, 영인, 지인, 신방, 원효, 순경, 경흥, 둔륜, 승장, 의적, 행달, 명효, 현범, 도증, 태현 등이 있다. 때문에 이 무렵에 신라에 법상종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도증, 신방, 의적 등이 그 宗祖였을 것이라는 논고도 나온 바 있다.<sup>48)</sup> 현재 이들의 저술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산일된 까닭에 일본 등에 산재해 있는 내용의 소개가 활발하였다.<sup>49)</sup>

이들은 신유식의 세대들으로써 신라 왕경의 불교계가 서로 간의 논쟁을 통해 교학불교가 매우 번성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원측이 서명학파를 별도로 내세웠던 것은 구유식에 기반을 둔 그의 교학이 규기와는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려의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은 『혜소국사비』에 ‘十七地瑜伽教門’, 『대지국사비』에 ‘瑜伽百軸文’, 『太賢心路章』<sup>50)</sup>, 『혜덕왕사비』에 ‘唯識述記’, ‘瑜伽論’ 100권으로 표현되어 나오고 있다. 또한 『금광명경』도 『金經』 내지 『金鼓經』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고려 전기 법상종에서 중시했던 논서들로서,<sup>51)</sup> 대지국사 법경, 혜소국사 정현, 지광국사 해

복원』 『불교학보』30.

- 48) 도증은 문명대, 1974-1975, 「신라 법상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 상·하, 『역사학보』62-63에서, 신방은 김상현, 1993 「신라 법상종의 성립과 순경」 『가산학보』 2에서, 의적은 최연식, 2003 「의적의 사상 경향과 해동 법상종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6에서 주장되었다. 특히 의적의 경우 최연식은 pp. 59~65에서 현장의 문인으로 보면서, 『성유식론』에 대한 주석서를 남겨 신라 법상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원효와 태현의 저술과 그 맥을 같이 하여 신라 법상종의 중심적 흐름과 긴밀하며, 금산사에 주석하여 진표의 법상종에 유식학적 측면에서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하였다.
- 49) 이만, 주 45)의 논문; 김상현, 1994 「집일금광명경소」 『동양학』24, pp. 259~284 ; 「집일승만경소」 『불교학보』, pp. 444~462.
- 50) 김혜완, 2008 「三角山 三川寺址 大智國師碑의 복원과 法鏡의 생애」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p.152.

린, 혜덕왕사 소현 등에 의해 유행되었다.<sup>52)</sup>

신라의 화엄종은 의상의 傳敎로 60화엄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연기에 의한 80권 『화엄경』의 사경과 799년의 40화엄이 전래됨으로써, 3본 『화엄경』이 신라에 완비되었다.<sup>53)</sup> 그러나 화엄교학의 측면에서는 60화엄을 고수하는 의상계와 80화엄을 새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연기계로 나뉘어져 고려로 이어졌다.<sup>54)</sup> 균여에 의한 남악과 북악의 언급은 이를 반영한다.

고려 초의 균여는 의상계로 이들을 융합하고자 화엄업을 선양하였으나,<sup>55)</sup> 의천은 ‘淸涼大疏’를 중시하고 원효와 연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sup>56)</sup> 이미 의상의 교학이 균여에 의해 이두로 표기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는 頓敎로서의 선종과 융화하고 있다.<sup>57)</sup> 그러나 의천이 신라 하대부터 전래되어 유통되어 온 청량징관의 『화엄경소』를 大疏라고 하여 특별히 중시한 것은 당시 중국불교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중국 불교적 요소로서 고려에서는 중국 불교의 조사설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각 종파마

51) 김남윤, 1992 「고려 중기 불교와 法相宗」 『한국사론』28, pp.128~130 ; 남동신, 2008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30, 한국불교연구원, pp.167~175.

52) 김혜완, 2008 앞의 논문, pp.162-163에서 삼각산 삼천사 대지국사 범경비문을 기준에 있던 비편과 새로이 발굴된 비편을 종합하여 신라 이래 고려의 법상종 계보를 확인하고 있고, 특히 현화사비 이래 삼천사 대지국사 범경비, 칠장사 혜소국사 정현비, 법천사 지광국사 해린비, 금산사 혜덕왕사 소현비로 연결되는 비신의 화려한 문양, 측면의 용문, 귀부, 이수 등의 조각수법은 미술사상 하나의 계보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53) 김복순, 1988 「신라 중대 화엄종과 왕권」 『한국사연구』63, pp.98~100.

54) 이에 대해서는 의상과 법장계로, 의상과 원효계로 구분하는 등 여러 설이 있다.

55) 김두진, 1977 「균여의 생애와 저술」 『역사학보』75.76합, p.118.

56) 최병현, 1980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均如派와 義天派의 對立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30, p.70.

57) 김복순, 1990 앞의 책, pp.138~141.

다 자종의 조사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만들어 유포한 것이다. 즉 신인종 조사설,<sup>58)</sup> 해동 유가6조설,<sup>59)</sup> 의천의 화엄9조설,<sup>60)</sup> 임준의 천태9조설<sup>61)</sup>이 그것으로, 이는 신라와는 다른 고려불교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유가와 화엄의 교섭, 교종과 선종의 융합은 신라와 고려 불교의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라의 유가에 화엄이 용융된 것은 692년 무렵 승전은 귀국하면서 의상에게 보내진 중국화엄종의 제3조 현수법장의 章疏가, 왕경의 유가승에게 알려지면서 화엄교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62)</sup> 고려의 의천은 화엄업을 전문으로 하면서도 『刊定成唯識論單科』라는 『성유식론』에 대한 주석서를 내기도 하였다. 선종의 전래 이래 교종과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다음으로 신라 불교와 고려 불교가 갖고 있는 시대성의 계승문제이다.

신라는 중국이 몇 차례의 폐불을 겪으면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리 역대 군주들이 대부분 봉불군주였다. 또한 중국의 도교집단과 같이 불교교단에 맞설 상대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는 불교 내에 잡다한 집단들을 포용함으로써, 신라는 망하였지만 나말여초의 다양한 사상적 난숙기를 열 수 있었다는 점이 특기된다. 특히 당의 무종 연간에 일어난 회창 폐불로 인해 중국의 불교가 선종 위주로 변화한 것과는 달리, 신라가 동북아시아에서 불교가 가장 흥성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계기였다. 수많은 선사들이 귀국하고 대장경과 불상들이 대거 유입되어 신라

58) 『삼국유사』 권5, 「명량신인」조.

59) 「금산사 혜덕왕사비」 허홍식 편저, 1984 앞의 책(중세 상), p.545; 이지관 편, 1995, 앞의 책(고려편 3), pp.28~29.

60) 『고려사』 권11, 숙종 6년 2월 병진일, 최병현, 1980 앞의 논문, p.72.

61) 「선봉사 대각국사비」 허홍식 편저, 1984 앞의 책(중세 상), p.598; 이지관 편, 1995 앞의 책(고려편 3), p.183.

62) 『삼국유사』 권4, 「승전축루」조 ; 최치원, 「법장화상전」.

는 다양한 종파의 불교와 경전, 불상 등을 보유하게 된 때문이다.

이를 이어받은 고려는 광종 대에 체관 등을 오월에 보내 불전을 전해주는 등 고려불교를 중국에 전파하였다. 이렇게 융성한 교학을 바탕으로 대장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종 대에 최승로에 의한 유교의 선양에 따른 불교행사의 비판 이래, 고려 말에 이르러 주자학 전래에 따른 排佛이 새 왕조 개창의 이념으로 구체화하였다. 결국 고려말 조선초의 유불교체는 신라 말의 사상적 연속성이 이루어진 상황과는 매우 다른 시대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신라의 불교가 고려로 이어져 그 연속성을 보인 반면, 고려의 불교는 더 이상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해 주자학의 배불논리에 밀려 주도적 사상체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 IV. 맺음말

신라와 고려는 사상적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라의 불교는 신사조로 유입되어 재래의 신앙체계를 극복하고 유가유식, 화엄종, 선종 등이 신라의 불교로 뿌리내렸다면, 고려는 불교 내에 잡다한 신앙들을 포용해 나간 시대적 간격이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려는 불교를 최고의 지위에 두고 유교와 도교는 물론 잡다한 신앙들을 그 안에 모두 포용하였다. 신라와 고려의 내용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주제인 까닭에 깊이있는 내용보다는 개설적인 설명에 그친 면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먼저 불교의 공인 이후 국가적 행사에 관한 내용이다. 신라는 불교의 공인 이후 무속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 할 ‘前佛시대 칠처가람설’을 통해서, 고려는 태조 왕건의 불교통합정책에 의거하여 각각 그 특색

을 띠게 되었다. 이들의 시대성을 비교해서 사상적 연속성을 짚어 보았다. 고려는 불교를 최고의 지위에 두고 이들을 階序的으로 포용하였기 때문에 불교국가라기 보다 다종교사회라고 하는 견해까지 있기도 하다.

한편 신라와 고려의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공통분모 속에서도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백고좌법회,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호국도량법회의 개최를 의미한다. 신라에서 시작된 이 법회들은 고려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 횟수가 잦아졌다. 또한 신라에서는 몇몇 고승들이 강경하던 행사가 고려에서는 經行과 같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되었다. 그리고 신라불교가 많은 주석서를 낸 학파성을 띤 불교였다면, 고려는 종파성이 강한 종합불교적 성격을 나타내었다. 신라의 사찰은 왕명에 의해 그 소속업이 바뀐 사례가 많지만, 고려는 태조의 유훈으로 이를 금지한 점이 비견된다. 사찰의 소속업은 최근 석가탑에서 목서가 발견된 불국사의 예를 들어 보았다.

다음으로 신라와 고려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와 시대성에 관한 문제이다. 천축승의 내방, 유입된 불교경전 등을 통해 인도불교적 요소와 중국불교의 영향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신라불교는 인도불교적 요소로서 『섭대승론』의 강경과 주석서 간행,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나오는 인도의 논서들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보았다. 반면에 고려에서는 신라 성덕왕 이래 유행한 중국불교적 요소가 더욱 번성하여, 각 종파의 조사설로 나타난 특징을 짚어 보았다. 특히 고려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불경을 전해 주는 등 상호교류적인 측면이 있었다.

신라와 고려의 불교를 시대성의 측면에서 보면, 신라의 불교가 고려로 이어져 그 연속성을 보이면서 사상적으로 난숙기를 연 반면에, 고려의 불교는 더 이상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해 주자학의 배불논리에 밀려 주도적 사상체계에서 밀려나게 된 점을 비견해 보았다.

투고일 : 2008. 10. 11	심사개시일 : 2009. 2. 23	심사완료일 : 2009. 3. 16
--------------------	---------------------	---------------------

##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문선』, 『최문창후전집』, 『해동고승전』, 『왕오천축국전』, 『大唐西域求法高僧傳』

허흥식 편저, 1984, 『한국금석전문』, 고대, 중세 상.

이지관 편, 1994-1995,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고려편2.

김남윤, 1992, 「고려 중기 불교와 法相宗」 『한국사론』28.

김두진, 1981,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한국학논총』4.

김복순, 2008, 『신사조로서의 신라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김복순, 2008, 「고려의 최치원 만들기」 『신라문화』32.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김상현, 1986, 「석불사 및 불국사의 연구」 『불교연구』2.

김형우, 1992,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완, 2008, 「三角山 三川寺址 大智國師碑의 복원과 法鏡의 생애」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남동신, 2008,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30, 한국불교연구원.

남무희, 1999, 「원측의 씨족연원과 신분」 『북악사론』6.

노명호·이승재, 2008, 「석가탑 목서지편 고문서의 판독 및 역주」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기초적 검토-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

박용진, 1999, 「고려 후기 인왕도량의 설행과 그 의의」 『북악사론』 6.

서운길, 1993,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신동하, 2000,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이흠, 2002, 『고려시대의 종교문화-그 역사적 상황과 복잡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6.

이만, 1990-1991-1992, 「법상관계 논소와 신라인의 찬술서-산일본을 중심으로

-」1-2-3, 『불교학보』27:28-29.

- 이인재, 2005, 「선사 공양(兢讓: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한국사연구』131.
- 이정신, 2002, 「고려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외 정세」 『한국사연구』118
- 정수일, 2004,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역주본』, 학고재.
- 채웅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본관제의 시행과 지방지배질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광식, 1995, 「신라 상대 왕경의 제장」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신라왕경연구-』16.
- 최병헌, 1980,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均如派와 義天派의 對立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30.
- 한기문, 1983, 「고려 태조의 불교정책-창건사원을 중심으로-」 『대구사학』22.
- 허홍식, 1983, 「한국불교의 종파형성에 대한 시론」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Abstract

The Ideological Continuity and Peculiarity of Silla and Korye  
 —Focused on Buddhism—

Kim, Bok-Soon

Korye upheld many traditions from Silla when they were united in 935. Among them, the ideological continuation was remarkable. This was absolutely different from the change of leading ideology from Buddhism to Confucianism between the end of Korye and the early stage of Chosun. Thus, I focus my eyes on how Silla's ideology could be continued to Korye and what the ideological peculiarity of the two dynasties was. This study will illustrate the ideological continuity and peculiarity of the two dynasties as the Buddhistic countries.

First, I analyzed the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and the national events. The leading ideology of Silla was characterized through "Chilchegaramsul(seven temple story) of Pre-Buddhistic Era" which could be the process to overcome shamanism after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That of Korye was characterized on the basis of the integration policy of Buddhism. Accordingly, I analyzed the ideological continuity by comparing the indication of time between the two dynasties with each other. For instance, Silla overcame the existing religious system by accepting Buddhism as a new trend of thought; thus, the old-Vijnaptimatrata, the new-Vijnaptimatrata, Whaermjong, Bupsangjong, and Sunjong could be settled down. However, Korye tolerated the various traditional religions which could be survived in the name of Buddhism. Especially, Korye put the Buddhism on the top and recognized other religions hierarchically; therefore, some people argue that Korye allows many different religions.

On the other hand, the Buddhism of Silla and Korye had its peculiarity despite the fact that Buddhism of both countries had the Buddhist service meetings, such as "Backgojwabupwhe," "Palgwanwhe," and "Yeondeungwhe," to

protect the countries. These kinds of Buddhist meetings which was begun in Silla were more emphasized and frequented in Korye. For instance, the Buddhist lecture meetings directed by a few Buddhist priests in Silla became a festival in which people paraded by putting the Buddhist scriptures on their heads. In addition, the Buddhism of Silla showed an academic trend which produced lots of notes and commentaries about the Buddhist scriptures; however, the Buddhism of Korye showed a character of mixed Buddhism emphasizing the sects. Furthermore, The Buddhist temples in Silla could change their sects by the order of king; however, this kind of change was prohibited in Korye, according to the first king's the teachings of departed.

Finally, I have studied the rol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trend of time which we can find in the Buddhism of Silla and Korye. In doing so, I mainly focused on the elements of Indian Buddhism and the influences of Chinese Buddhism. I found the main characters of Silla Buddhism in the Buddhist meetings to lecture the "Supdaeseungron," which had the Indian Buddhist elements,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its notes and the Indian Buddhist books mentioned in Hecho's "Wangochunchukkukjeon". I also found the main character of Korye Buddhism in the fact that the elements of Chinese Buddhism had become popular since the era of the king of Sungduck of Silla and in the tradition which emphasized the succession to the leadership of Buddhist sects influenced by Chinese Buddhism. In fact, Korye exchanged the Buddhist scriptures with China. When we see these characters in terms of the trend of time, Silla Buddhism attained full maturity by continuing its thought to Korye, while Korye Buddhism was begun to be alienated from the leading ideology because of the anti-Buddhistic theory of Juja study, by not keeping its wholesome ideas.

Key words : Silla and Korye, the Ideological Continuity and Peculiarity, "Chilchegaramsul of Pre-Buddhistic Era", the integration policy of Buddhism of Korye' first king Teajo, the Buddhist service meetings to protect the countries. the elements of Indian Buddhism and the influences of Chinese Buddhism.